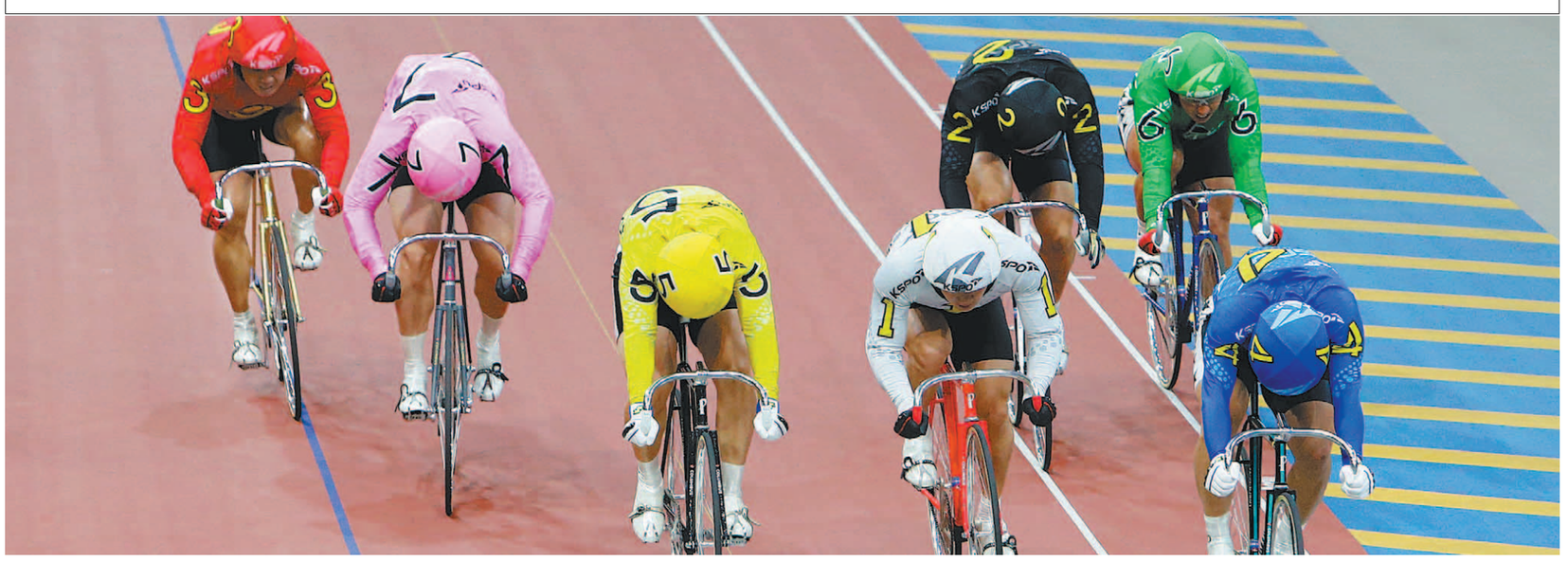
경륜 포커스 | 베일 벗은 24기 신인들, 누가 누가 눈에 띄나?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역주를 하는 경륜 선수들. 올해 트랙에 데뷔한 24기 신인선수들은 앞으로 인지도가 올라가고 완급조절 등 경주운영 능력이 향상되면 더 좋은 성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선발급 슈퍼루키 4인…특별승급 보인다

김명섭·이주현·이형민·손재우 기대
우수급 박진영도 특선급 승급 가능성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경륜 신인선수들이 4회 차까지 한두 차례 실전 무대를 경험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인상은 강렬하지 못했다. 1회차 창원(교차)-광명에 출전한 수석졸업생 공태민을 비롯한 7명의 24기 중 두 명만 우승을 신고했다. 승률 40~50%, 연대율 70~80%에 육박했던 선배들의 데뷔 무대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하지만 2회차와 3회차에서는 신인 특유의 파워와 공격적인 전술이 성공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입상률도 60%대로 상승했다.

●우수급(5명)

공태민(양주)은 24기 수석졸업생으로 가장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역대 1위 졸업생과 비교하면 성적이나 경기 내용 모두 아직 인상적이지 못하다. 자력승부 위주의 과감한 운영과 수준급 스타트 능력을 보유했지만, 완급 조절, 뒷심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기본 체력 등 하드웨어는 특선급 유지가 충분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30세)에 데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특선급에서 롱런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노력과 자기관리가 관건이다.

박진영(창원A)은 승률 40%, 연대율 60%, 삼연대율 100%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다. 선행시 스타트가 뛰어나고 뒷심도 좋다. 인지도가 더 오르고, 초반 상대를 활용하거나 완급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지면 특선급 승급도 문제없을 전망이다. 오기호(유성)는 아직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지만 연대율 60%, 삼연대율 100%의 안정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선발급(17명)

선발급에는 우수한 신인들이 넘쳐난다. B1에 배정받은 김명섭(세종), 이주현(광주), 이형민(창원A), 손재우(가평)는 동기보다 먼저 특별승급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력은 동급 최상위 수준의 기존 선수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선다는 평가다. 한 바퀴 승부가 자유자재이고 스타트나 종속 모두 나무랄 데가 없다. 매 경주 축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배준호(대구), 문인재(부산), 최석윤(계양), 송종훈(대구), 명경민(대구)도 수준급 기량을 갖추고 있다. 몇몇은 지나치게 초반 힘을 몰아쓰다 보니 종속 유지에 어려움을 겪지만, 앞으로 인지도와 경험이 쌓인다면 자연스레 고쳐질 수 있는 단점이다. 동급 축 내지는 유력한 입상후보로 꼽을 유망주 그룹이다. 이록희(미원), 임경수(가평), 임요한(동창원)도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

'최강경륜'의 박창현 발행인은 "데뷔 초는 실수가 잦기 마련이고 스타트 때 힘을 지나치게 몰아 쓰다 보니 대체로 뒷심에 약점을 나타내 자주 역전을 허용한다"며 "하지만 인지도가 올라가고 완급조절에 여유가 생기면 큰 폭으로 전력이 올라가니 주 습성, 전개상 변화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륜, 올해 1차 훈련지별 방문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 경주 품질 향상을 위해 대전과 충주에서 '2019년 제1차 훈련지별 방문교육'을 실시했다. 훈련지 방문교육은 경주 관련 부서 임직원과 훈련지도관 등이 선수들이 훈련하는 지역을 찾아가 낙차·실격 등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권역별 훈련을 비교하고 훈련 방법 교육시스템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대전과 충주 방문교육에는 경륜경정총괄본부 권동연 경주운영본부장, 정인권 경륜 경주실장, 경륜선수협회장, 훈련지도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2019년 훈련지별 방문교육은 10월14일까지 총 13차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8 경정대상 시상식

경정선수 153명, 2018년 인센티브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4일 2018년 경주에 출전한 153명의 경정선수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상금을 지급했다. 인센티브 상금은 경주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한 선수를 대상으로 선수별 기여도 및 연간 수득상금을 감안해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2017년 실시 이후 그동안 총 1억 200여만 원을 지급했다. 2018년은 개인별 기여 지표가 목표를 달성해 전년도 지급액 5900여만 원을 넘었다. 정용운 기자

'꾸준함의 대명사' 손제민을 주목하라

올초 200승 달성…6기중 유일한 기록
인코스 강자…스타트 꾸준한 상승세

경정 손제민(6기, A1, 38세)은 '꾸준함의 대명사'다. 자기 포지션에 맞는 안정적인 경주 운영으로 경정 팬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선수로 유명하다.

데뷔 첫해인 2007년 평균 스타트 0.32초, 1착 7회, 2착 13회, 3착 6회로 6기 동기생 중 가장 많은 승수를 올려 신인상을 수상했다. 2011년에는 개인 최다승인 24승을 달성했다.



손제민

손제민에게 잊을 수 없는 시즌은 2015년이다. 평균 스타트 0.23초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주 운영을 통해 1착 22회, 2착 14회, 3착 7회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9월 스포츠경향배 준우승에 이어 12월 시즌 최고의 대상 경주인 그랑프리 대상경정에서 우승하며 꿈에 그리던 최고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아웃코스 경주 운영에 기복을 보이며 2016년 13승, 2017년 15승으로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다시 원래 기량을 되찾았다. 지난 시즌 총 68회 출전해 1착 19회, 2착 18회, 3착 13회와 승률 28%, 연대율 54.4%, 삼연대율 73.5%를 기록했다.

올해도 2회 출전해 1착 1회, 3착 1회로 안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시즌 첫 출전인 2회 2일차 13경주(1월10일)에서 1코스의 이점과 함께 압도적인 스타트(0.18초) 승부를 통한 인빠지기로 우승하며 통산 200승을 달성했다. 현재 200승 이상을 기록 중인 선수는 총 31명인데 이중 6기는 그가 유일하다.

손제민의 장점은 우선 스타트다. 경정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량인데, 데뷔 첫해 0.32초 이후 단 한 시즌도 평균 0.30초를 넘지 않았다. 스타트가 안정적인 만큼 인코스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경주 운영을 펼친다는 것도 강점이다. 경주 흐름에 맞는 적절한 1턴 전개 능력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도권을 잡기위한 인빠지기와 휘감기 전법뿐 아니라 난이도 높은 휘감아찌르기 전법도 쟁쟁한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확실하게 구사한다.

그랑프리 우승 경험과 안정적인 스타트, 노련한 경주운영을 겸비한 손제민은 올 시즌 첫 출발부터 개인 통산 200승 기록까지 작성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정용운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toto 스포츠토토

'토토프렌즈', 목소리 기부활동에 전직원 참여

케이토토 다문화 가정 아이들 위해 녹음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회봉사단 '토토프렌즈'가 지난 24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플레이백 녹음실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제 5차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의 경우 약 30명의 '토토프렌즈'와 더불어 케이토토의 김철수 대표이사가 직접 녹음에 참여하며 더욱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써 전 직원의 참여를 목표로 지난해 9월 11일에 첫 활동을 시작한 목소리 기부는 장장 5개월 동안 5차례에 걸친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전체 봉사단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빠른 적응을 독려하기 위해 '토토프렌즈'가 적극적으로 기획한 프로젝트다. 실제로 이번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은 전문 성우의 트레이닝을 받은 후 각 역할에 따른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음원을 녹음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진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와 더불어 녹음실 한쪽에서 '토토프렌즈'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따뜻한 손 편지까지 직접 작성하는 등 조금이나마 아이들에게 힘을 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녹음을 마친 음원과 손 편지는 전문적인 편집을 거친 후 북 리더기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에 수혜가정 및 해당기관에 전달됐다. 케이토토는 전달식을 통해 '토토프렌즈'가 8월부터 12월까지 녹음한 동화책 음원과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전용 리더기 30대, 그리고 동화책 375권을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전했다. 이와 함께 '토토프렌즈'는 행복도시락 서부플러스센터를 통해 다문화 결식아동들을 위해 요긴하게 쓰일 도시락 1000개를 기부하는 등 소소하지만 따듯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8월에 출범한 케이토토 사회봉사단 '토토프렌즈'는 지난 5개월간 지속적으로 펼쳐온 목소리 기부 활동으로 진정한 나눔의 노력이 하나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아시안컵 이란-일본전 축구매치 540배…이변에 적중자 70명!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28일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 이란(홈)-일본(원정)전을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매치 6회차에서, 6000원 가량의 1인당 참여 금액으로 성숙한 소액 참여문화를 선보였지만 일본이 이란을 3-0으로 꺾는 이변이 일어나며 적중자는 크게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근소한 우세 속에 접전을 예상한 팬들이 많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이란이 심판에 어필하는 어수선한 틈을 탄 일본 공격수 오사코 유아의 선제골에 이어 패널티킥 골까지 터졌고, 종료직전 하라구치가 쐐기 골을 성공시키며 3-0의 큰 스코어가 발생했다.

실제로 이전 경기까지 일본은 전승을 거뒀지만 매번 고전하며 1점차의 승리를 거둬온 반면, 이란은 무서운 기세로 이번 대회에서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으며 매 경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온 터라 축구팬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그 결과 축구토토 매치게임에 참여한 2만1903명 중 단 70명만이 적중에 성공하며, 본인이 참여한 금액의 539.7배에 해당하는 상금을 받게 됐다.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 "퀴즈 맞히고 아메리카노 받으세요"

'스포츠 퀴즈 맞히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받아가세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을 통해 30일 자정까지 농구 규칙과 관련된 문제를 맞히는 '토토 상식영역'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퀴즈 이벤트는 스포츠토토 페이스북 내 페이지를 방문해 애니메이션으로 주어지는 농구 문제를 확인하고, 이 상황에 맞는 정답을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퀴즈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농구 경기 중 백보드를 맞힌 슛을 수비수가 걷어내는 상황이 주어지며, 이때 심판이 내려야 하는 옳은 판정에 대해 총 4개의 보기가 나온다. 보기 1번은 '득점O, 수비수의 골텐딩', 2번은 '득점O, 수비수의 파울', 3번은 '득점X, 수비수의 블로킹', 그리고 4번은 '득점X, 사이드라인에서 공격 재개'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영상을 확인한 후, 정답을 댓글로 달면 된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팬들 중 정답을 맞힌 2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따듯한 아메리카노를 구매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해당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